

칼 럼

‘운칠기삼(運七技三)’



김 홍 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인생살이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한다. 세상만사에서 인간의 재주(노력)가 3이면 하늘의 섭리(운)가 7이라는 이야기다. 인생사는 실력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운수나 재수가 따라야 된다는 뜻이다. 입시철과 인사철이 지나고 새해를 맞다보니 운칠기삼이라는 옛말이 새삼 떠오른다.

얼마 전 뉴스에서 시간당 몇 십 만원하는 대학 진학 상담 서비스가 학원가에서 유행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입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뉴스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무엇보다 실력으로 결판나야 할 대학 입학이 부모의 재력이나 그야말로 운의 영향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도 하다.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직장인의 명운을 가르는 인사를 보면 처연한 심정이 더하다. 물론 한 해의 실적과 공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주변 여건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보고 있는 사람이 안타깝다. 맡은 분야의 경기가 좋아 진급하는 사람이야 개인의 복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부서가 통폐합되어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 받은 자가 남는 것은 아닐까.

어릴 적에는 그래도 실력이 좌우하는 부분이 더 컸다. 학교생활만 해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측면에 일면 수궁이 간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 직장에서는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갈

수록 학연, 지연, 파벌이 중요해진다. 여기에 운이 덧붙여져 능력 이외의 요인들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심지어는 운구기일(運九技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체념적인 운명론으로 흐르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운칠기삼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노력 없이는 운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과도 통하는 의미이다. 노력을 충분히 하여 잘되면 주변에서 도와주고 운이 따르는 다행스런 결과이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운이 안 따른 것이며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이 겸허해지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편해진다.

지난 몇 년 동안 건설업황은 우울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 건설 물량은 담보 상태에 머물렀으며, 부동산 시장은 수차례의 부양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사철이 지나가면서 낭보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운이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다. 운 좋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면 이 추위를 견뎌내기가 조금이나마 수월하지 않을까.

신년에는 경기가 풀려 시장이 활기를 띠 것을 기원한다. 그때까지는 실력을 키우면서 기회의 새 지평이 열리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금상첨화(錦上添花)로 새해에는 모든 독자들께 많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CERIK